



“이 마을에서 지낸 지 한달이 지나간다”

“이 곳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신기하게 쳐다보지 않는다”

5:29600

“도로에 있는 표지판 처럼 오래전부터 쪽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른다”

“서로 다른 것이 닮아서 같게 되는 것이 동화이다”

“누군가를 특별히 좋아하게 되면 닮게 된다”

同化 “동화”

라운아띠 태국 6월 보고서



“후어이깨우 CLEAN 프로젝트”



후어이캐우 클린 프로젝트는 라온아띠가 이곳에서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활동이다. 태국에서 분리수거는 생소해보였다. 이곳 사람들이 비닐봉투 등 일회용 물품등을 쉽게 쓰고 버리며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것을 많이 보았다. 이곳 마을도 비슷했다. 우리들이 처음 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교와 학교주변은 쓰레기로 매우 지저분했다.



이곳 학교에서 요구했던 활동
중에 하나도 환경교육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곳에서 환경 교
육을 중점으로 진행하기로 하였
고 그에 맞춘 세부활동들을 직접
기획해 진행해 나갔다. 세부활동
들의 내용은 포스터 그리기, 주변
지역 쓰레기 줍기, 분리수거 가르
치기, 벽화 그리기였다.



포스터그리기는 아이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인식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초등학교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까지 모두 포스터를 그렸으며 이것을 학교 게시판에 전시하였다.





아이들이 직접 그림을 그림으로서 환경문제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쓰레기줍기와 분리수거 활동은 인식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아이들이 힘들게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를 하면서 쓰
레기를 쉽게 버리지 않으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
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분리수거를 위해 라온아띠
예산으로 분리수거통을 구
입해 반과 학교 곳곳에 설치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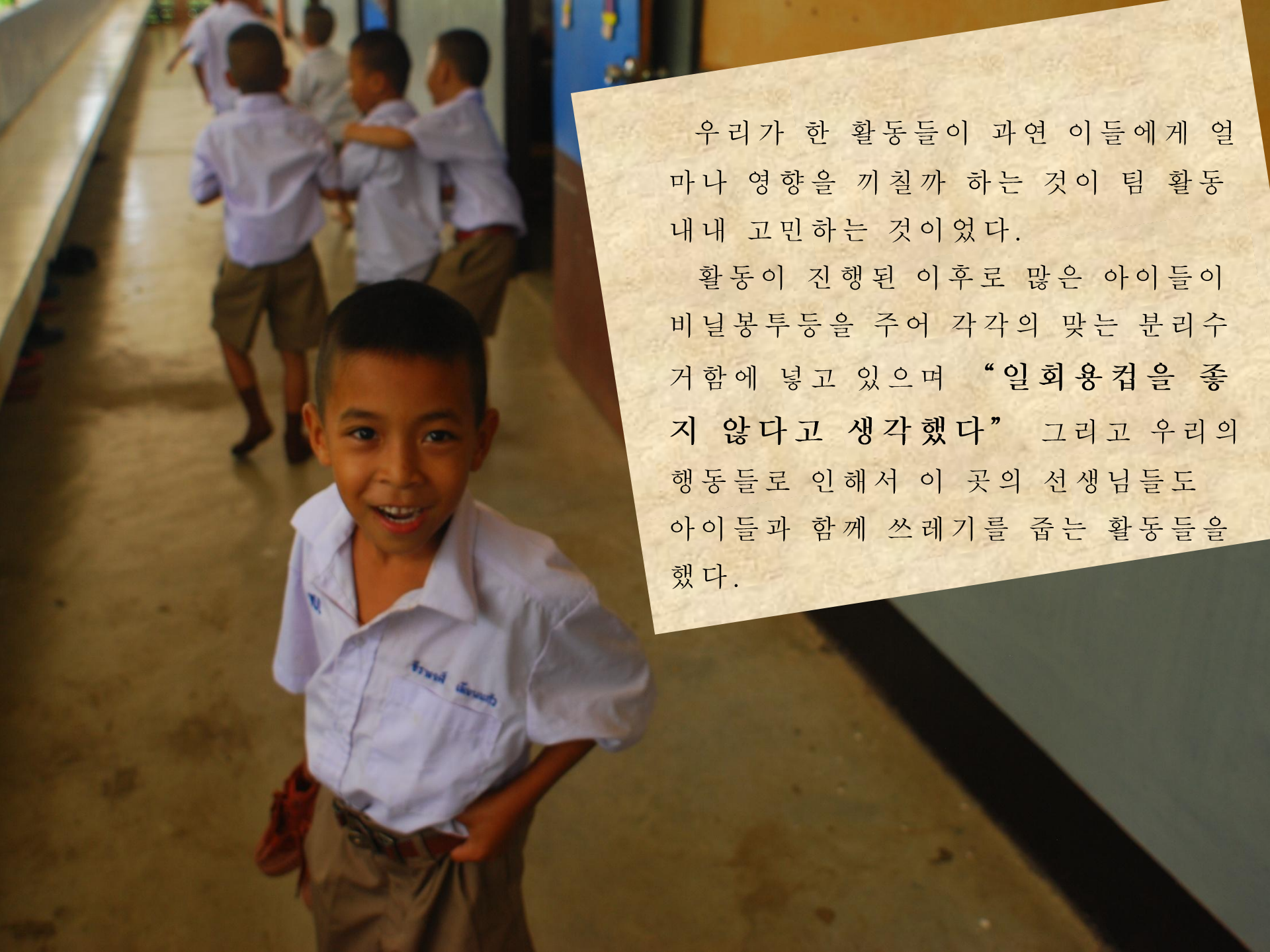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벽화 그리기
는 수업에서 배우고 자기
가 한 행동을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상징
으로 운동장 벤치에 표어
와 손바닥 도장을 칠했다.

벽화 그리기는 현재 진행중
이다. 전체 9개반중에 6섯개
반이 벽화그리기에 참여했다.



ประหยัดน้ำ



우리가 한 활동들이 과연 이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하는 것이 팀 활동 내내 고민하는 것이었다.

활동이 진행된 이후로 많은 아이들이 비닐봉투등을 주어 각각의 맞는 분리수거함에 넣고 있으며 “일회용컵을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로 인해서 이 곳의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는 활동들을 했다.



활동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말하기엔 이르지만 이것만으로도 의미
가 있는 활동들이었다고 생각되어졌다.
물론 우리가 간 이후로 이들의 활동이
지속적이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학생들의 의식이 변하고 그것이 퍼져
그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기대해본다.



아마 랜어나서 이렇게 많이 내리는 비는 처음이다.

엄청 무더운 이곳에서 비는 행운이다.



태국에서 라온아씨는 각각의 학생의 태국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처음에는 다소 생소한 맛을 가진 음식들과 다른 문화, 분위기 등에 힘들어 했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 팀원 모두 잘 적응해나가며 태국을 몸소 느끼고 있는 중이다.



주한이 단원의 홈스레이 이야기



빅이라는 초등학교 5학년 11살 남자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빅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빅의 부모님과 빅의 여동생은 방콕에서 살고 있다.
주말에 빅을 보러 할아버지집으로 돌아오신다.



빅의 할아버지는 말이 없으시고 무뚝뚝하시다. 무서워서 말을 잘 걸지 못한다.
하지만 손자와 손녀 앞에서는 매우 달라지신다.
그 모습이 퍽 훈훈하다. 할아버지는 농장에서 바나나와 고무나무를 키우신다.
장정이 하시는 일들을 무리 없이 하신다.



빅의 할머니는 마을 중심가에서 바나나를 말린 맛있는 과자를 파신다.
저녁때에는 학교에 가서 에어로빅을 하신다.
어디가실때 마다 자전거를 타고 나가시곤 하신다.



태국의 전통집에 주방이다. 할머니의 요리솜씨는 훌륭하시다.

보통의 태국집들은 주방이 집과 떨어져 있다.

이곳에서 맛있는 태국음식들을 해주신다.



태국 북부에서는 이런식으로 식사를 한다.

까오니아우(찰밥)을 손으로 뭉쳐서 함께 두세가지 반찬 국과 식사를 한다.

찰밥을 매운노즈에 먹거나 썸담과 함께 먹음 그 맛이 일품이다.



태국 가정의 여가시간에는 주로 텔레비전을 본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세계 어느 가정이나 똑같은 거 같다.



빅은 다섯 시 반에 일어나 6시에 아침을 먹고 6시 반에 학교로 간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10분이 걸린다.

빅이 일찍 학교에 가는 것도 있지만 보통 태국 학생들은 이때 학교로 출발한다.



학교는 세시반에 끝난다. 끝나면 모두 다같이 생테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
빅도 집은 가깝지만 집에 갈때는 생테우(학교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
생테우는 나라에서 지원해준다고 한다.



빅은 집에 와서 가끔씩 독제를 한다.

독제가 어려운가 보다.

비는 활발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다.



빅은 친구들과 함께 개울에서 수영하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이 곳은 무척 덥기 때문에 이렇게 노는 것을 시원해 좋아한다.



빅은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매우 활동적이다.

빅은 커서 그 또래아이들처럼 군인이 되고 싶어 한다.



빅은 9시에 잔다. 아침일찍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찍 자야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10시면 주무신다. 아침 새벽에 일을 가셔야 하기 때문이다.
시원한 아침에 일을 해야 한다.
이 곳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와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빅네 개다.

처음에는 나를 엄청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익숙해져 지금은 내 앞에서 잠도 잔다.

이 집의 가족이 된 것을 이 개를 보며 새삼 느끼게 된다.



두 달 동안의 기간 동안 즐거웠지만 분명 힘든 경험도 많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언어와 국적을 넘어 마음과 마음으로 진정으로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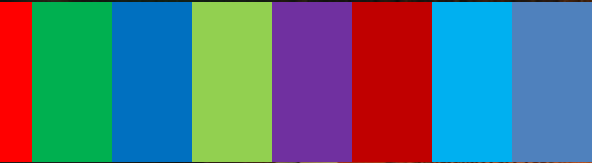
한국에 돌아가 태국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했을 때 분명 이 곳에서의 경험은 가장 많은 추억으로 다가올 것이다.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조금은 먼 곳에서 온 우리들을 좋은 손님으로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환이 단원의 머리변화



한국문화교류 프로그램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학교에서 외국문화를 소개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그 지역에서 벗어나 좀 더 넓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라운아띠가 이 곳에서 환경교육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한국문화 교류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이 주였으며, 음식교류와 협찬받은 한복으로 한복입어보기 수업 등의 교류를 가졌다.





한국어 교육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은 기본적인 회화중심의 수업이었다. 수업의 흥미도를 높이기 위해 게임과 노래부르기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아이들은 한국어 수업을 특히나 좋아했다.





음식교류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음식과 태국음식을 서로 만들어 나누어 먹었다.

태국팀은 비빔밥  매자과 

만들었으며 선생님과 학생들은 쏘담 

(파타야샐러드)과 파타이(볶음국수) 

와 차이옌(타이전통차)를 만들어 주셨다.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힘들었지만 모두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에 대해 더욱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협찬받은 한복으로는 유치원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복을 입어보고 한
복을 그리는 수업을 가졌다.

아이들이 처음 보는 옷에 매우 신
기해했으며 입는 것을 즐거워했다.



대

한

민

국

첫승이다!!!

태국에서도 한국팀을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라온아띠는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6월 태국은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만 더운 이곳
에서 비를 맞으며 뛰어나는 것
은 시원해 기분이 썩 괜찮습니
다 비를 더 맞기 위해 일부러 우
산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월드컵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태국사람들은 축구 보는 것을
좋아해 월드컵경기가 중계되
는 시간이면 TV 앞을 떠날 줄
을 모릅니다. 많은 태국사람
들이 한국팀의 선전을 기원해
주었습니다.

태국가정에서 살면서 27살 아
저씨가 11살 친구가 생겼습니
다. 같이 놀기 위해서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즐겁습니다.
어린아이가 된 기분입니다.

어느덧 한달이 남았습니다. 한달이 남았
다고 하니 무척 아쉽습니다. 한달만 더
있었음 좋겠습니다.

7월 보고서를 기대해주세요

